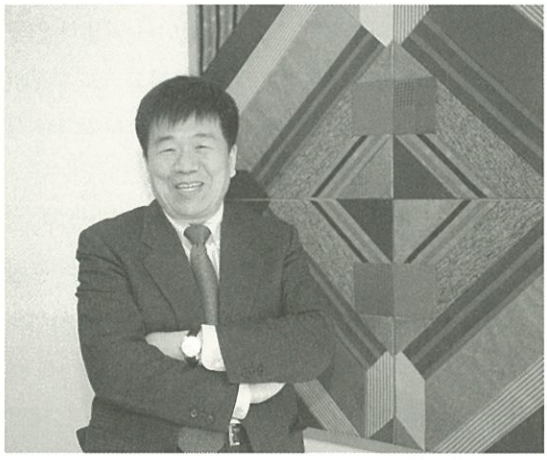
중앙도서관 홍성걸 관장님 인터뷰

학내기관탐방

박 정 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홍성걸 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5년 12월 3일 수요일 14시부터 약 1시간가량 관장실에서 이루어졌다.

관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생과 교수님들에게 학습과 교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관장님으로부터 우리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고, 가능하다면 유관기관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더 적절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관정관을 개관하면서 중앙도서관이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엄청난 확장이 이루어진 뒤, 관장님께서 4월에 부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관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은 500만여 책의 단행본 자료, 10만여 종의 학술지와 전자저널, 20만여 점의 비도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도서

관 중 최대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2015년 2월 관정관 신축으로 최대 규모(17,468평)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본관과 관정관, 8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은 자료 중심의 서비스 공간으로, 관정관은 첨단 시설을 갖춘 이용자 맞춤형 공간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중앙도서관이 편리한 서고 기능과 쾌적한 열람실 기능, 즉 다분히 경영관리적인 측면에 치중해 운영되었다면, 향후 중앙도서관은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한 동시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발맞추어 학술데이터베이스 확충과 최첨단 학술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연구정보지원 서비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지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나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고의 대학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정보의 확산은 물론 대학의 위상 강화와 우리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해 우리대학 중앙도서관이 역점사업의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올해 신축한 관정관의 안정적 운영과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본관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둘째, 서울대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서의 역량강화와 함께 연구 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셋째, 도서관의 하드웨어적인 발전에 걸맞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수준 높은 장서 구성,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 시스템 구축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반응 혹은 만족도를 파악해서 반영하는 일이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수님들을 포함해 학생과 연구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실제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정관 개관 이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1일 평균 5천 명 이상이 도서관을 찾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2015학번 1학년은 스스로 '관정학번' 이라 부를 정도로 도서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룹스터디룸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동 과제와 학습을 하기 위해 찾고 있고, 영화 및 음악 감상 공간인 멀티미디어 플라자는 '관

정시네마' 라 칭하며 학생들이 와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최근에 3, 4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 관리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더 나은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도서관 규모가 물리적으로 2배로 커지다 보니 도서관 운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관정관 냉난방 및 청소 등 용역비용의 증가, IT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본관 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전자저널 등의 학술지 구독가가 매년 상승하여 해마다 학술지 구독비용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서관이 학내 지식정보의 중심 기관으로 학술적으로나 시설면으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덧붙여 장애우 학생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든지 도서관 주위 상가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잘 대응하여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경우, 학습지원부의 업무 가운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며 글쓰기교실에서는 학생들의 글쓰기 과제물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 가운데도 학생들의 논문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좌, 워크숍,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가운데 소개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중앙도서관에서는 대학원생의 논문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1:1 집중 컨설팅 프로그램으로서 '논문작성 클리닉 2 · 1 · 7' (*관정관 217호실 전용) 서비스를 2015년 7월 1일 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주요 상담 내용은 ▲ 학술정보 검색법, ▲ 서지정보 관리, ▲ 참고문헌 작성법, ▲ 표절예방 및 올바른 인용법, ▲ 논문 투고 및 출판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대학원생의 논문작성 전(全)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11월 말 현재 약 100여 건의 개인별 상담을 진행하였고,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관 DB 및 학술정보 검색 교육, EndNote 이용 교육 등 학생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개 강좌의 정기 교육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학과 및 Lab 단위로 출장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장으로서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교육원이나 글쓰기교실 등과 같은 기관들과 구별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만의 기능이나 역할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앙도서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학내 기관들이 협력하여 학내 구성원들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중앙도서관은 2016년부터 추진할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역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학내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트렌드 분석 등의 그룹별 연구특화 서비스와 창의적 학술연구 서비스를 사서의 역량강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학내 지식정보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학내생산 지식정보의 큐레이션 기능을 수행하며 고문헌 자료 디지털 콘텐츠 구축, 고문헌 자료 복원 사업, 규장각 대출도서 도서관 환수 등 고문헌자료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도서 이용 자동화 및 무인대출서비스 등 스마트 도서관을 구현하며 올해 처음 추진되었던 고교생캠프 등의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본관 리모델링 추진, 이용자중심의 장서개발 및 미디어 콘텐츠 개발, 관정관 안정화 및 첨단화, 안정적인 예산 확보, 직원 전문성 강화 등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들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향후 우리 도서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성제대 컬렉션' 의 안정적인 정리 및 해제 작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한국학 중심의 규장각의 기능이나 역할과 구분되는, 중앙도서관만이 실현할 수 있는 '경성제대 컬렉션' 을 위해 장서 보관 및 해제 작업, 아카이브 구축 등의 사업을 준

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수행된다면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중앙도서관만의 고유의 가치를 소장하게 될 것이며, 연구자나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선생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도서관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구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또 뵈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